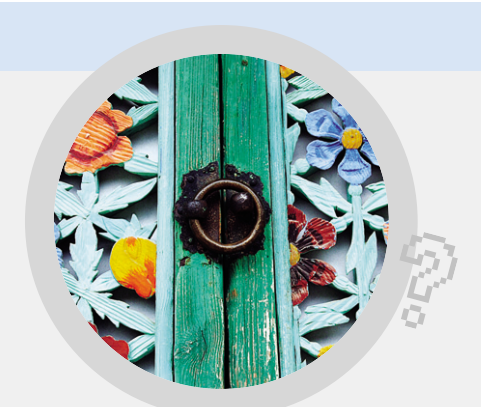




붉은 부도밭 불갑사



붉디 붉은 꽃무릇 걸음 걸음 화두 드네



불갑사는...
창건시기가 분명하지 않아 384년(침류왕 원년)에 마라난타가 창건했다고도 하고, 백제 문주왕 때 행은이 창건했다고도 한다.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중창했으며, 고려 후기에 각진국사가 머무르면서 크게 중창했다.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 법흥 스님이 중창했고 1634년에는 해룡 스님이 중창했으나,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면서 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 1938년에 설제 스님이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갑사로 가는 길은 은통 붉은 꽃무릇으로 요란하다. 붉은 꽃잎들이 조울을 마친 약기처럼 가을 햇살 속에 서있다. 꽃길 끝에 도량이 보인다. 인도 스님 마라난타존자가 창건한 불갑사다.

몇 해 전 겨울에 왔을 때 하얀 눈을 밟으며 마당을 걸었던 기억이 난다. 하얀 눈 위에 찍힌 큰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연화실까지 걸었던 기억도 나고, "이번 안거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며 "빛자루 들라, 화두 들라 여느 때보다 바쁘다"고 말씀 하였던 큰스님 생각도 난다.

연화실 담장 너머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큰스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후원으로 간다. 저녁 공양 시간이다. 큰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시자스님은 큰스님 지팡이랑 똑같이 걷는다. 선방을 지나고, 군데군데 꽃무릇을 지나고, 노랑게 고개 숙인 감나무를 지나고, 향냄새 가득한 법당을 지난다. 밥 냄새가 난다.

나오는 길에 부도밭이 보인다. 부도들 뒤로 꽃무릇이 피어있다. 저녁예불을 알리는 법고 소리가 들려오고, 길어지는 부도의 그림자 끝은 이내 붉게 물들어간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